

화순 운주사 관광지 보성 차·소리 공원 해남 녹색미로공원

돈줄 마른 시군 사업 중단 속출

연기
담보
유보

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각종 관광개발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일부 시·군이 관광지 개발 등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외에 자체 부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화순군의 경우 올해 16억7800만원을 들여 '운주사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기로 했지만 자체 사업비 6억 7100만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화순군은 그나마 지난 10월 긴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끝내 사업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결국 화순군은 올해 군비 미확보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해 내년까지 완공하려던 계획을 미뤄야 할 형편이다.

보성군도 내년까지 한국 차·소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완공할 계획이지만 올해 사업비(8억3300만원) 중 자체 확보해야 할 예산(3억33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국비(5억원)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성군은 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체 예산(8억53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12억8000만원의 국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은 이에 따라 예산의 60%(5억 1300만원)만을 마련해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사전에 약속된 국비 배정액 중 그 비율만큼(7억7000만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해남군도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비(3억3300만원) 중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은 모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된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서 명칭이 바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기존 시도단위를 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으로 정부는 관광개발 등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발전사업 예산 중 50~60%를 이 계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17일 중국 광저우 아모티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자유형 100m와 여자 평영 2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낸 박태환(왼쪽) 선수와 정다래 선수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수영 최고의 날

박태환 자유형 100m 금 '3관왕'
'전남의 딸' 정다래 평영 200m 금



한국 수영의 최고의 날이었다.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1·단국대)이 17일 중국 광저우 아모티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8초70의 한국 신기록으로 대회 2회 연속 3관왕에 등극했다. <관련기사 18·19면>

이어 열린 여자 평영 200m 결승에서는 '여수 인어공주' 정다래(19·전남수영연맹)가 2분25초02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으며 금메달 릴레이

를 장식했다.

박태환은 14일 자유형 200m에서 1분44초80의 아시아 신기록으로 레이스를 시작한 뒤 16일 자유형 400m에서는 3분41초53의 한국 신기록 및 시즌 세계 최고기록으로 2관왕에 올랐다. 박태환은 도하대회에서 은메달에 그쳤던 자유형 100m까지 가져가면서 2회 연속 대회 3관왕이 됐다.

아시안게임 통산 6개의 금메달로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5개)의 한국 수영 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기록을 넘어선 박태환은 18일 1500m에서 대

회 4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여수의 딸 정다래도 여자 평영 200m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의 인어공주로 우뚝 섰다.

한국 여자 수영선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1982년 뉴델리 대회 3관왕 최윤희, 1998년 방콕 대회 평영 200m 금메달리스트 조희연에 이어 정다래가 세 번째다.

여수구봉초등학교 5학년 때 수영에 입문한 정다래는 문수중학교와 부영영여고를 거쳐 여자 수영 간판으로 입지를 굳혀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檢, '입법로비' 소환불응 전원 구인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소환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는 최인기 의원실 등 민주당측 관계자를 전원 강제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검찰 관계자는 "어제 체포된 3명을 조사 중이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관계자들을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체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전날 오후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 사무국장과 최규식 의원실 전 보좌관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전국청원경찰전담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경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들 외에도 소환에 불응한 실무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최인기, 조경태, 유선호 의원이 당론에 따라 아직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당 의원실 직원들도 소환에 불응했다면 당연히 체포해 조사했을 것"이라며 강제구인이 원칙에 따른 수사절차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짓고 다음주부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던 의원 11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제6회 광주일보문학상
시인 이수행씨 선정

'제6회 광주일보문학상' 수상자로 이수행(48·사진)씨가 선정됐다. 상금 300만원. <관련기사 13면>

고재중 시인 등 심사위원단은 이씨가 응모한 시 '유정포구'(有情浦口)와 2편에 대해 "섬뜩한 비의를 품고 효과적으로 독자의 정수리를 파고들

만한 시"라며 "시 알맹이의 결구함, 긴장감이 높은 육화된 언어들이 고유한 시의 집을 구축해 시의 혼과 정신의 예각이 번뜩이는 좋은 작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나주 출생인 이씨는 지난 1995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시 부문에 '영산강 1'이 당선돼 등단했으며 민족문학작가회의(현 한국작가회의) 등에서 활동하다 2000년 시집 '영산강'을 냈다.

현재 천연 미네랄비료를 생산, 보급하는 BS-그린비료(주) 이사로 재직하면서 시작활동을 하고 있다.

시상은 내년 1월 '201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에서 함께 이뤄진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 고사장 어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예비소집일인 17일 광주시 서구 화정중에서 한 수험생이 수험표를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수능 난이도 평이... EBS 연계 출제 70%

광주·전남 4만3095명 응시

18일 치러지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작년 수준과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하되 EBS 교재 연계율이 70%대로 높아져 전반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은 시험이 될 것으로

본다. <관련기사 7면>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평가원은 EBS 교재 연계율을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50%, 9월 모의평가 때 60%로 높인 데 이어 이번 수능에서는 70%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와 EBS 교재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또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으로 수능 시험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인다는 게 정부방침이고, 그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평이한 수능' 기조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올해도 그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편, 이번 수능은 18일 오전 8시40

분부터 오후 6시55분까지 전국 82개 시험지구, 120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며, 올해 수능에는 원서접수자 기준으로 지난해(67만7834명)보다 5.07%(3만4393명) 늘어난 71만2227명이 시험을 치른다.

광주·전남 수험생 4만3095명은 87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다. 광주는 2만2859명, 전남은 2만236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37명(4.3%), 992명(4.6%)이 늘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선인
*객실: 전 객실 50% 할인
*웨딩홀: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풀진주: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할인율 *각종 세미나 (대·중·소연회)開催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정시모집 12월17일~22일
가 군원사접수
각대학원원사접수 11월 2일~23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남부대학교 대학원 전기 석·박사 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 교육대학원 · 보건경영대학원
원서접수 11월 19일(금) 면접 11월 26일(금)
남부대학교 | 062)970-0040~7

오늘 겨울은
키스해링으로 따뜻하다!